

중년 판타지... 안방에 분 ‘아저씨’ 바람

‘김부장’·‘오십프로’... 소시민 중년의 통쾌한 반전 웹툰·웹소설 원작 증가·TV 시청층 고령화도 영향

중년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늘면서 방송계에 다시 ‘아저씨’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회사와 가정의 무게를 견디는 소시민인 동시에, 과거의 능력을 되살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적 인물로 모습을 바꿨다.

▶“안경 쓴 아저씨” 알고보니 능력자... 강력해진 ‘K-아저씨’=‘김부장’은 방송 6회에서 최고 시청률 22.3%를 기록하며 역대 SBS 금토 드라마 시청률 2위에 올랐다.

이 작품은 웹툰을 원작으로 특수요원 출신 김부장(소지섭 분)이 힘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다 딸이 실종되는 사건을 계기로 정체를 드러내고 싸우는 이야기를 그렸다. 자식을 위해 어떤 일도 참아내던 그는 딸이 납치되자 살벌한 본능을 봉인 해제한다. “그냥 안경 쓴 아저씨”였던 김부장이 ‘슈퍼맨’처럼 안경과 양복 뒤에 숨겨둔 능력을 꺼내 악인을 거침없이 응징하는 모습은 팍팍한 현실 속 통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지난달 종영한 MBC ‘오십프로’도 왕년에 잘 나갔던 세 중년이 주인공이다. 팔시받는 가장인 중국집주방장, 사고뭉치 조카를 뒷바라지하며 사장의 괴롭힘을 견디는 회사원, 매출에 집착하는 편의점 사장은 각각 국정원 블랙 요원, 북한 특수공작원, 조직폭력배였던 과거가

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반전 배경을 둔 인물이란 점에서 ‘김부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의 등뼈를 이루는 이른바 ‘아저씨’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는 사회적 애환이나 소시민적 어려움에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며 “평소 시원하게 폭발하지 못했던 시청자들이 소시민 주인공을 통해 느끼는 후련함과 대리만족이 흥행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연대하는 ‘아저씨 여벤져스’=과거에도 tvN ‘나의 아저씨’(2018)가 중년의 삶을 조명해 많은 시청자에게 ‘인생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이 삶의 무게를 버티는 중년 남성과 팍팍하게 사는 젊은 여성이 서로의 삶을 치유하는 과정을 다뤘다면, 최근 ‘김부장’과 ‘오십프로’ 등은 중년의 연대를 적극 활용했다.

김부장이 주먹 한 방으로 상대를 때려눕히는 ‘먼치킨’(압도적으로 강한 캐릭터)으로 그려지지만, 그가 마음껏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두 사람의 조력 덕분이다.

‘오십프로’도 신하록, 오정세, 허성태가 각각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의 연대를 보여준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드라마 속 중년



SBS ‘김부장’ 포스터. SBS 제공

남자들의 네트워크가 현실과 연결되면서 주는 킴진성이 있다”며 “서사적으로도 2인의 버디물보다 3인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툰 IP가 부른 중장년물 인기=중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제작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업계에선 이러한 흐름이 사회 고령화와 TV 드라마 시청층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한다.

이 교수는 “방송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는 시청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며 “시장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청자 타깃 확장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부장’과 같이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증가하면서 빠른 전개 속 강력한 힘을 지닌



MBC ‘오십프로’ 포스터. MBC 제공

‘먼치킨’ 주인공이 늙어난 것도 이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교수는 “웹툰, 웹소설에서 ‘힘숨전’(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 서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인물이 숨겨둔 엄청난 힘을 빠른 전개로 단시간에 보여주기 위해 ‘은퇴한 실력자의 복귀’라는 판타지를 동원하면서 중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의 반전이 캐릭터의 성장을 단축하는 동시에 통쾌한 ‘사이다’를 제공하는 장치로도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전의 중년을 다룬 드라마 제작은 계속 이어진다. 오는 31일 첫선을 보이는 MBC ‘유부녀 길러’는 평범한 워킹맘과 악질 범죄자를 처단하는 전설의 저격수 ‘킹피서’를 오가는 유부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AI 추리 게임쇼 ‘머더클럽’ 오는 29일 첫선
페이커 예능 도전... 빠니보틀·최양락 등 출연

디즈니+가 인공지능(AI) 미스터리 추리 게임쇼 ‘머더클럽’을 오는 29일 처음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머더클럽’은 야구장, 교도소와 조선시대 등 매회 새로운 공간과 시대를 배경으로 출연진 전원이 가상의 살인 사건 용의자가 돼 단 한 명의 범인을 가려내는 추리 예능이다. 살인 사건 에피소드를 AI로 구현해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전설이라 불리는 T1의 페이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예능에 도전한다.

또한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코미디언 최양락과 엄지훈, 배우 신성록, 전 공무원 김선태, 동방신기



디즈니+ ‘머더클럽’ 포스터. 디즈니+ 제공

최강장민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인들이 출연한다.



영화 ‘호프’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곡성’ 이후 10년 만의 SF 신작
나홍진 ‘호프’ 개봉... 예매량 ‘올해 최대’

올해 최고 기대작인 나홍진 감독의 SF 영화 ‘호프’가 개봉일인 15일 60만장에 달하는 예매량을 기록하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호프’ 예매율은 68.1%로 외화 ‘스파이더 맨: 브랜드 뉴 데이’(11.3%),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 몬스터즈’(6.2%)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예매 관객 수는 59만9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가

상의 마을 호포항에 알 수 없는 외계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나 감독이 ‘곡성’(2016)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인 데다가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페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연진으로 가세해 올해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다.

영화는 지난 5월 열린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최초로 공개됐다. 이후 한 달여가 넘는 기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게 됐다.

‘김부장’ 글로벌 돌풍... 넷플 비영어 쇼 2주 연속 1위

납치된 딸을 찾는 아버지를 그린 액션물 ‘김부장’이 2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15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김부장’ 시청수(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91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6일 처음 공개된 ‘김부장’은 2주 차에 1위를 차지한 뒤 2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국가별로 는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카타르 등 22개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72개국에서 톱 10에 들었다.

SBS 금토드라마로 방영한 후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김부장’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닌데도 톱 10 순위에서 이례적인 흥행

을 이어가고 있다.

시청률 면에서도 방송 4회 만에 20%를 돌파하고, 6회는 22.3%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작품의 흥행에 힘입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2회에 걸쳐 스페셜 방송이 편성됐다.

‘김부장’ 외에도 총 4편의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 쇼 톱 10에 올랐다. ‘참교육’은 ‘김부장’에게 2주 연속 정상을 내주고 2위를 지켰다. 김부열이 주연해 공교육 현실을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6: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7:00 농천에는 따라잡기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셀북(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광복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푸라기 탐구생활 11:00 말하는 몸	8:50 꼬마법사 주니토니 9:20 처음 배우는 AI 11:05 세기테마여행 13:25 EBS 평생학교 15:50 마사와 곰 16:40 최고다! 호기심 따지 17:10 페파 피그 18:50 PD로그 21:55 왔다 내 손주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베틀더뮤직 시즌 2(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30 동네 한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카자엔로 3(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농천에는 따라잡기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뽀빠뽀 뽀이롱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5: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45 배미원 시즌4 13:00 건강한가요(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와이드 정보소 알고보면 16:00 여행에 진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내모세고 스페셜 17:30 JIBS특집 원도심 음악살롱	9:00 KCTV 9시 뉴스 9:30 인터넷 제주를 말한다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00 KCTV 11시 뉴스 11:30 탐나는 보이스 12:30 황금나침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10 지영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6:00 삼촌 명심합서에 17:30 살아있네 살아있어 19:30 도매물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홍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18:00 경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신상출시 편스토랑 21:55 웰컴 투 수근골 23:05 토요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18:05 테마여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23:50 유부녀 길러 프리미어	19:00 뉴스원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2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토리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6일

김홍상 지단(組頭)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형 교수(010-5233-6136)

36년 건강에 이상이 오니 휴식이 필요하다. 48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 형제간 대화가 필요하다. 60년 자녀문제로 애·경사가 있거나 소식이 오면 상면하라. 72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84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37년 불필요한 선심이 상대의 오해와 후회를 갖는다. 49년 한가지 일로 꾸준함이 남의 칭찬과 인정을 얻는다. 61년 좋은 일과 굶은 일이 교차하니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 73년 신경이 날카롭다. 주위에 민감하고 혼자 있을 비탄한다. 85년 친구나 동료간 불화가 올 수 있으니 상처주는 말은 삼가하라.

38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내가 방문을 하게 된다. 50년 동료나 거래처 관계인의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한다. 62년 시댁 어른이나 처가에 방문이 있거나 외출 등 여행을 한다. 74년 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소식이 있으며 할 일이 생긴다. 86년 어떤 일이나 기다림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함이 지체된다.

39년 처방전의 효과가 미흡하나 마음의 안정은 있다. 본인 의지가 중요. 51년 실인 또는 실수가 따르니 대화 시에는 언행을 조심. 63년 이사 변동 또는 집내부 변화를 주려 하고 몸이 분주. 75년 불필요한 외출이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87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 약속이 생긴다.

40년 경쟁하거나 다투지 마라. 내가 불리하다. 52년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4년 내게 타고난 직업에 대해 가끔씩 고민해 보고 바꾸고 싶다. 76년 창업이나 일을 꿈꾼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88년 이성이 다가오고 직장인은 상사의 칭찬도 따른다.

41년 동료나 친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53년 배반, 배신수가 따르니 행동에 신경 쓸 것. 65년 원형 또는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승용을 중지해야. 77년 직장인에게 실직, 이통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9년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치중해 집중할 필요가 있는 날이다.

42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4년 불필요한 인정을 커지니 자제. 66년 새로운 투자나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 강하게 밀어붙여라. 7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90년 조급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43년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빈축을 산다. 55년 투자나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보충설정 주의. 67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 민감하다. 79년 업무나 직장관련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협조를 요청하라. 9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기 신경쓰는 일.

44년 기대를 크게 하는 것보다 현실에 충실. 56년 희망과 큰 야망은 현실의 괴리감을 얻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68년 부모님이나 윗어른의 일로 가정이 시끄러워나 부부 애정문제는 적신호.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 자매의 불협화음이 있고 이성교제는 적신호. 92년 갑연이설에 고민. 보충 서면 불리하다.

45년 개인사업은 늦게까지 바쁘거나 일이 있다. 57년 사소한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 운전조심. 69년 친지 어른이나 거래처의 문제로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81년 다투거나 경쟁을 하지마라. 진정한 승부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지혜 필요. 93년 자녀 또는 문서상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46년 원전에 충실하면 주변에서 인정 받는다. 58년 업무와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을 받는다. 70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나누어라. 82년 미혼자에게 중매 또는 이성교제자가 찾아온다. 94년 기회가 오면 결정을 신속히 하라. 여기에 이득이 있다.

47년 자식의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59년 문서운이 길하며 부모님이나 윗분의 도움이 있다. 71년 동료나 형제자매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다. 그들의 지혜를 얻어라. 83년 취업이나 업무가 늘어나고 기쁨은 임신, 출산 또는 기쁨이 있다. 95년 나눔과 양보가 큰 힘이 되는 때.